



우리나라 최대의 스포츠 종합 제전인 전국 체육대회가 24일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폐막식을 마지막으로 7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다. 올해로 94회째를 맞은 이번 체전에서 경기도가 대회 12연패를 달성했고 광주는 종합순위 14위, 전남은 13위를 차지했다. 내년 체전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된다. /경인일보=임순석 기자

광주 모범 선수단상... 내년 제주에서 만나요 **광주, 수원 잡고 3위 굳히나**



제 94회 인천 전국체전 폐막

광주 2만5879점 14위·전남 2만7278점 13위 MVP 수영 박태환... 볼링 최복음 대회 5연패

지난 18일부터 7일간 열전을 펼친 제94회 전국 체육대회가 24일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대회결과 광주는 금 35, 은 44, 동 67개의 성적을 내며 종합순위 14위(종합득점 2만 5879점), 전남은 금 41, 은 49, 동 51 개를 획득하며 종합순위 13위(2만7278점)를 차지했다. 지난해 대회에서 15위에 머물렀던 대전이 선전하며 12위로 올라섬에 따라 광주, 전남 순위는 전년보다 한 계단씩 내려앉았다. 또한 수영에서 4관왕에 오른 '마린보이' 박태환(24·인천시청)이 이번 대회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광주는 타 시·도 선수단에 모범이 되고 페어플레이 경기를 보여줘 모범 선수단상(국회의장배)을 수상했다. <광주, 전년 대비 총메달 수 증가=대회 마지막 날인 24일 광주는 골프 남자일반부 경기에서 광주·전남 분리후 처음으로 개인과 단체 우승을 차지하는 등 금메달 3개와 동메달 1개를 추가했다. <전남 여자볼링 5연패=전남 여자볼링팀이 이번 대회에서 5연패를 달성했다. 박태환(24·인천시청)이 이번 대회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차지하며 2관왕에 올랐다. 레슬링 정영호(남구청)가 남자일반부 자유형 66kg급 결승경기에서 이진우(전북도청)와 겨뤘던 1라운드 T플승(7-0)으로 금메달을 차지했고, 유수진(조선대 4년)은 남자대학부 자유형 60kg급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43개 종목에 총 1227명(선수 968·임원 259명)이 출전한 광주는 점수비중이 높은 단체종목(아구·검도·정구)에서 부진했으나 기록종목과 개인대진 종목에서 선전하며 전년대비 17개 많은 14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전남 여자볼링 5연패=전남 여자볼링팀이 이번 대회에서 5연패를 달성했다. 박태환(24·인천시청)이 이번 대회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46개 종목에 총 1663명(선수 1238·임원 425명)이 출전한 전남은 6개의 무득점 종목으로 인해 고전했지만 승마와 궁도·볼링·배구 등에서 선전을 펼쳤다. 이 밖에도 대회 기간동안 광주·전남 선수의 신기록 작성과 다관왕 타이틀 획득이 이어졌다. <역도 이인우(완도 수산고 3년)는 남고부 69kg급 용상에서 대회 신기록(171kg)을, 권수영 김태균(광주시체육회)도 호흡점령 100m에서 대회 신기록(32.44초)을 세웠다. 또 4관왕 이영성(전남조리과학고 3년)과 3관왕 김동요(고흥산업과학고 1년)를 앞세운 전남 볼링 선발은 여고부 전종목을 휩쓸었고, 3관왕 최복음(광양시청)은 남자 일반부 마스터즈를 5연패했다. 현직 훈련중 부상을 입은 양학선(한국체대 3년)은 부상을 발회해 체조 도마종목을 3연패했다. 한편 내년 전국체전은 10월 21일부터 7일간 제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내일 K리그 챌린지 30라운드

광주 FC가 수원 FC와 화끈한 화력싸움을 벌인다. 광주 FC가 오는 26일 오후 4시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수원 FC를 상대로 K리그 챌린지 30라운드 원정경기를 치른다. 두 팀은 만나기만 하면 난타전을 벌였다. 4번의 맞대결에서 광주가 8골을 몰아넣었고, 수원이 9골을 터트리면서 화려한 양상을 보였다. <또 97개의 슈팅 중 56개가 유효슈팅이 될 정도로 수준 높은 공격이 펼쳐졌다. 상대전적도 2승2패로 팽팽하게 맞서있다. 시즌 마지막 맞대결을 앞둔 광주는 승리로 상대전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각오다. <화력전화가 관건이다. 광주는 앞선 부천과의 경기에서 0-3으로 패를 기록했다. 부천전 첫 패이자 시즌 4번째, 6개월여 만의 무득점 경기였다. 당연히 수원전을 앞둔 광주는 공격력을 공을 들였다. 문전에서 마무리 패스와 슈팅 정확도에 초점을 맞춰 훈련을 진행했다. <앞선 부천전에서 역삼각형의 중앙 미드

필드진으로 공세적인 경기 운영을 했던 광주는 이번 경기에서는 이광진을 꼭지점으로 해 김은선과 오도현이 뒤를 받치는 정삼각형 형태로 허리를 세울 생각이다. 공격에서는 선제골이 목표다. 상대 진영에서의 과감한 돌파와 중거리 슈팅 등으로 전반 초반부터 상대 수비라인을 흔들겠다는 생각이다. <지난 라운드 고안전을 치른 수원은 전력 누수가 많다. 핵심 골잡이 박종찬을 비롯해 조태우와 김종성, 하정현 등 기술과 스피드를 갖춘 선수들이 퇴장 및 경고누적으로 대거 나올 수 없다. <전력의 공백에서 수원 조덕태 감독은 자신의 외국인 선수 보그단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친정팀 상대를 앞둔 보그단과 김한원, 유수현, 임성택, 김보광 등의 활약을 놓고 수원의 머릿속이 복잡하다. <보그단이 중계를 할 볼에 대한 2차적인 대비, 광주의 대표적인 장신 수비수 유종현과 득점한 수비수 임하람의 역할이 중요할 전망이다. <광주가 수원의 빈틈을 노려 3위 자리를 굳힐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덕현 “할아버지 영전에 금메달 바칩니다”

배찬미 세단뛰기 1위 영예

“할아버지 영전(靈前)에 금메달을 올립니다.” 남자일반부 멀리뛰기와 세단뛰기에서 2관왕에 오른 김덕현(27·광주시청 육상팀)은 지난 23일 경기 종료후 뜨거운 눈물을 삼켰다. 언제나 자신을 응원 해주던 할아버지가 오전에 운명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전해들었기 때문이다. 김덕현은 지난 20일 열린 남자일반부 멀리뛰기에서 7.66m를 뛰어 금메달을 차지했고, 23일 세단뛰기에서도 16.18m를 기록하며 2관왕에 올랐다. 지난해에 이어 2연패다. <조선대 재학중이던 2004년부터 올해까지 9년간 전국체전 멀리뛰기와 세단뛰기 종목에서 7차례나 패권을 차지하는 중력을 과시했다. <특히 김덕현은 2008년 제89회 전국체전 대회(일반)신기록(8m13) 달성, 2009년 베오그라드 U대회 한국신기록(8m20), 2010년 중국 광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8m11) 등 기량을 뽐내다가 지난 2010년 세계선수권대회 세단뛰기 8강에서 불의의 다리 부상을 입고 말았다. 하지만 차츰 부상에서 회복하며



<김덕현> <배찬미>

예전의 기량을 되찾아 가고 있다. <광주시청 육상팀은 이번 체전에서 금메달 3, 은메달 3,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역대 최고의 성적을 냈던 지난해 성과(금 7, 은 2, 동 1)에는 못 미치지만 알찬 결실이다. <배찬미가 여자일반부 세단뛰기에서 13.20m를 뛰어 개인신기록 수립과 1위의 영예를 얻었다. 또한 김민균이 남자일반부 100m에서, 박태경이 110m 허들에서, 박영식이 해머던지기에서 각각 은메달을 획득했다. <정복순은 여자일반부 마라톤에서 2시간 40분 49초 기록으로 결승선을 3위로 통과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임산부의 몸으로 우승 이끌어 감회 새롭다

광주체고 조정 신영금 감독

“기쁨이 두 배입니다. 선수 때보다 지도자로서 탄 금메달이 더 의미가 깊습니다.” <지난 22일 광주체고 조정팀 유혜령(3년)·박예리(2년) 조가 8분18초25만에 여고부 더블스컬(선수 두 명이 좌우 네 개의 노를 젓는 경기) 결승선을 1위로 통과하는 순간 신영금 감독의 감회는 남달랐다. <이번 메달은 1997년 경남 전국체전 때 처음 신설된 더블스컬 종목에서 광주 선수가 17년 만에 따낸 첫 금메달인데다 같은 대회 여고부 무타페어에 출전했던 신 감독과 서연아(당시 광주체고 3년) 조가 금메달을 차지한지 17년 만에 맞본 고등부 첫 금메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더블스컬 금메달에 이어 박예리가 여고부 싱글스컬(한 명의 선수가 양손으로 두 개의 노를 젓는 경기)에서 동메달을 획득해 기쁨이 배가 됐다. <1991년 7월 창단한 체고 여자조정팀은 현재 유혜령·김예림(이상 3년), 박예리(2년), 김수정·이다인(이상 1년)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체고 조정팀은 광주에서 1시간 거리



광주체고 여자조정팀 신영금 감독과 박예리·유혜령 선수.(왼쪽부터)

인 장성호에서 매일 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애로를 겪었다. 광주호는 수심이 낮고 2km밖에 거리가 나오지 않아 훈련장소로 부적절하다. 전남과 달리 전용시설이 없어 장비도 컨테이너에 임시 보관하고 있다. <유혜령은 졸업후 장성군청 실업팀에 입단할 예정이다. <임신 8개월의 무거운 몸에도 선수들을 지도해온 신 감독은 “어려운 훈련환경 속에서도 선수들이 모두 열심히 해줬다”며 “앞으로 신입생 선수들을 육성해 한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광주·전남 생활체육 한마당 축제

광주, 6000여명 5개종목 열전

전남, 해남서 22개 시군 교류

광주·전남의 주말이 생활체육행사로 풍성하다. <광주 생활체육인들의 대축제 제25회 광주 시장기 생활체육 한마당 축제가 27일 삼무 시민공원에서 열린다. <오전 10시 개회식과 함께 막이 오르는 이번 축제에는 5개구 생활체육 동호인 6000여 명이 참가해 승부차기·한마음 공굴리기·이어달리기·단체줄넘기·줄다리기 5개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벌인다. <조선대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과 함께 시작되는 개회식은 각 구별로 준비한 다양한 입장식 퍼포먼스를 통해 열기를 더하게 된다. <광주시 생활체육회(회장 김창준)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의 장 제공과 시민 1인1종목 갖기 운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제 25회 전남도민 생활체육대회도 성대하게 펼쳐진다. <전남도 생활체육회(회장 이탁우)가 개최

하는 이번 대회는 ‘화합꽃핀 땅끝체전 희망꽃은 행복전남’이라는 표어 아래 해남군 일원에서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제 17회 도민의 날 기념식을 겸한 개회식은 25일 오후 3시 해남 우슬경기장에서 열리며 시·군 선수단 입장과 함께 막이 오른다. <명랑대첩·패러글라이딩 퍼포먼스와 가수 장운정·박상민·박현민·이용·현숙 등의 축하 공연도 준비됐다. <이번 대회에는 22개 시·군 생활체육인들과 후호교류를 위해 찾는 서울시 생활체육 동호인까지 역대 최고인 5655명의 동호인과 임원이 참가한다. 이들은 정식종목 18개, 민속종목 3개 시범종목 1개 등 22개 종목에서 우승을 위한 열전을 벌인다. <시·군 참가인원은 목포가 22개 종목 324명으로 가장 많고, 여수가 315명, 해남이 313명, 신안인 295명 순서다. <종목별로는 축구에 가장 많은 22개 시·군 473명이 출전하며 배드민턴이 345명, 야구가 324명, 배구가 292명, 족구가 272명이다. <대회 최고령은 게이트볼에 출전하는 목포 대표 이재선(만 84세)이며 고흥의 태권도 대표인 김예찬(만 12세)은 최연소 참가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